



요산의 낙동강 문학을 대표하는 '모래톱 이야기'는 1966년 발표작이다. 환경에 무지했고 무심했던 그 시절 낙동강 생태를 들먹인 요산은 시대를 앞서서 열어간 선각이었다. 가진 자의 불의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행을 그냥 넘기지 않은 게 요산의 문학이고 요산의 작가정신이다.



ㅠㅠ

요산문학관은 김정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간이다. 타계한 지 딱 10년인 2006년 11월 금정구 남산동에 개관했다. 여기가 나오자 자란 생가라서 낙동강 파수꾼의 문학관을 금정산 자락에 세웠다.



문학이고 요산의 작가정신이다. '불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을 괴롭히지 말라며 낙동강 파수꾼이 되었고 낙동강 지킴이가 되었다. 요산의 낙동강 문학을 대표하는 '모래톱 이야기'는 1966년 발표작. 환경에 무지했고 무심했던 그 시절 낙동강 생태를 들먹인 요산은 시대를 앞서서 열어간 선각이었다.

문학관 내 도서관 인기

"다른 문학관과는 달리 도서실이 있어서 책을 보며 요산의 향취를 접하는 분이 많아요." 요산문학관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을 표방한다. 그 증명이 도서실이다. 대개의 문학관은 상설 전시 위주. 한 번은 가도 두 번 가기가 쉽지 않다. 요산문학관은 도서실 드나들며 요산의 시민정신과 작가정신을 접하는 부산 시민이 꽤 된다며 문학관 나여경 사무국장은 귀띔한다. 나 국장 역시 소설가다. 생가와 같이 있는 점도 요산문학관 향취를 높인다.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꼽히는 가가건축 안용대 대표가 설계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교실. 문학 강좌. 요산문학관은 언제 가 봐도 파릇파릇하다. 갈대청 같다. 부산시민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문학관에 생기가 넘치게 한다.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 잠시 숨을 고르는 편이지만 함께하려는 마음만은 코로나도 어쩌지 못한다. 문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다. 1층 북 카페, 2층 전시실과 도서실, 3층 작가를 위한 집필실이다. 요산이 꼼꼼하게 작성한 2층 전시실 낱말 카드와 식물도감, 육필원고는 '휘리릭' 지나다가는 요산 선생에게 한소리 듣지 싶다.

1998년 시작한 요산문학축전

'마주 보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요산문학축전은 요산문학관이 역점을 두는 연례행사다. 1998년 시작해 작년 제23회 행사를 했다. 사단법인 요산기념사업회 주관, 부산작가

회의가 주최하는 이 축전은 요산의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킨다는 취지에 걸맞게 당대 시대상을 반영한다. 2020년 축전은 코로나 19 극복 의지를 담아 '마주 보는 얼굴'을 전면에 내세웠다.

요산문학관의 또 다른 명물은 은행나무. 요산의 문학만큼이나 높아서 멀리서도 보고 찾아온다. 단풍 좋다고 티를 내는 나무와 달리 거기 있는 것조차 알리지 않지만, 단풍이 들기 전에도, 단풍이 들고 나서도 찾아오는 사람은 찾아온다. 몇 시간을 같이 있어도 돌아서기 아쉬운 당신처럼 몇 시간을 같이 있어도 돌아서기 아쉬운 나무가 요산문학관 은행나무다.

'직필야인주지 곡필야천주지(直筆也人誅之曲筆也天誅之).' 요산은 봇글씨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전시실 안쪽 '직필'로 시작하는 친필 휘호는 보는 순간 머리칼이 쭉 뻗 선다. 직필은 사람이 베고 곡필은 하늘이 벤다! 요산은 살아서도 사람을 쭉 뻗 서게 하더니 죽어서도 쭉 뻗 서게 한다. 요산은 요산이다.



요산문학관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그 증명이 도서실이다.

- 홈페이지 : www.yosan.co.kr
- 관람 : 화요일~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
- 입장료 : 1천 원
- 가는 길 :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1번 출구 또는 시내버스 80번 타고 남산동 정류소 하차.

글·동길산 시인/사진·문진우
조민제_jominje@korea.kr